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40



▶ 41회 예고
빠딸리뿌뜨라로 돌아온 특사단장 라다굽따는 빈두사라왕에게 보고하고자 궁궐 집무실로 간다. 그러나 건강이 나빠진 빈두사라왕은 별궁 침소에 있다. 라다굽따는 그곳으로 가서 빈두사라왕에게 보고하고 난 뒤 다르마 왕비도 만난다.

아쇼까, 데비에게 청혼하다

라다굽따 특사 일행과 담마팔 사문이 빠딸리뿌뜨라로 출발하기 하루 전이었다. 아쇼까는 이미 측근 참모들에게 환송연을 준비하도록 명했다. 호위대장은 어제 아침에 일찌감치 베디샤 상인수장 데바와 데비를 초청하기 위해 웃자인을 떠났다. 경비대장은 군사를 시켜 웃자인 부근 도시의 우두머리 관리들에게 환송연을 알리도록 지시했다. 심복인 선봉대장만 궁궐에 남아 아쇼까를 보좌했다. 선봉대장이 말했다.

"부왕님께서 라다굽따 특사께서 오시던 날 소장이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그제야 아쇼까는 생각난 듯 말했다.

"그날 밤 대장이 말했소. 상인수장 데바의 딸 데비를 부인으로 삼는다면 아반띠국의 모든 상인들이 더욱 충성할 것이라고 말했소."

"진심으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대장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오. 그러나 나는 정략적으로 아내를 맞이하고 싶지는 않소."

선봉대장이 아쇼까의 눈치를 보면서 입을 다물었다. 아쇼까의 생각이 자신과 다른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아쇼까는 데비를 사랑스러운 여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데비의 마음이 아름답다고 느꼈소. 데비를 닮은 자식이 있다면 웃자인에 있는 동안 나는 행복할 것 같소."

아쇼까는 아상디밋따가 마음에 걸렸지만 라다굽따가 가져온 그녀의 편지를 읽고는 그런 부담도 덜어버린 상태였다. 아기를 갖지 못하는 아상디밋따가 아쇼까 부왕이 다른 여인을 만나 자식을 갖기 바란다고 편지에 밝혔던 것이다.

"아상디밋따는 나에게 다른 부인을 만나도 좋다고 했소. 진심이니 망설이지 말라고 했소."

"부왕이시여, 오늘 밤을 넘기지 마십시오. 환송연 중에 데비를 불러 청혼하십시오."

"대장, 내가 원하던 바요."

아쇼까는 선봉대장에게 환송연 중에 데바와 데비를 접견실로 안내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아쇼까가 데비에게 청혼할 것이니 귀띔해주라고 했다. 환송연에 왔다가 갑자기 청혼을 요청받은 데비가 당황할 수도 있었으므로 사전에 알려주라는 말이었다.

"부왕님, 데비가 어떻게 나올지 걱정됩니다. 여자의 마음과 개구리 뛰는 방향은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장에게 알아서 처리하라고 맡긴 것이오."

"환송연 중에 소장이 데비의 마음을 떠보겠습니다."

"데비가 당황하지 않도록 잘 말하시오."

"부왕이시여, 반드시 데바와 데비를 접견실로 안내하겠습니다."

선봉대장은 빠딸리뿌뜨라를 떠날 때만 해도 진압군을 이끈 대장이었지만 지금은 아쇼까의 심기까지 살펴서 일을 처리하는 측근참모 역할을 했다. 경비대장과 호위대장도 그의 수하에 있었다. 아쇼까가 모든 비밀을 터놓고 말하는 사람은 빠딸리뿌뜨라 출신인 선봉대장뿐이었다. 경비대장과 호위대장은 웃자인 출신으로 용의주도한 아쇼까에게 아직 심복은 되지 못했다.

호위대장에게 연락을 받은 데바와 데비는 다음 날 아침에 베디샤나가르 농원을 떠났다. 집사 타리쉬가 특별히 관리해온 말은 지치지 않고 빨리 달렸다. 데바가 앞서고 데비가 뒤따랐다. 데비는 말을 타고 달리는 내내 자신이 입고 있는 옷차림에 신경 썼다. 귀걸이와 팔찌, 발찌는 최근에 데바가 사다준 것으로 찼지만 새 옷은 농원 저택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데바는 딸 데비가 입고 있는 붉은 사리와 에메랄드 빛깔의 비단 치마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데바가 힘겹게 뒤쫓아 오는 데비를 위해 잠시 뻡빨라 나무 그늘로 들어가 쉬면서 말했다.

"데비야, 너는 무슨 옷을 입든 잘 어울리는구나."

"담마팔 사문님을 오늘밤에 뵈는데 옷이 이래서 아쉬워요."

"웃자인 저택에도 옷이 있지 않느냐?"

"아,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웃자인 저택에 한 번도 입지 않은 새 옷이 있을 거예요."

"바라나시에서 사온 붉은 비단옷이 있을 거야."

데바는 까시국 수도 바라나시에 무역하러 갔다가 아내와 데비 옷을 사다준 것을 기억해냈다. 까시국에서 생산한 비단 사리와 저고리와 치마였다. 데비는 다른 나라로 무역하러 갔다가 돌아올 때마다 아내와 딸 데비가 좋아할 만한 선물을 사왔던 것이다.

웃자인 저택으로 돌아온 데비는 하인들에게 목욕물을 데우게 했다. 데비 자신은 옷장에서 푸른 비단사리와 붉은 저고리와 치마를 꺼내 입고는 청동거울에 자신을 비춰보았다. 한 번도 입지 않은 새 옷이었다. 데바는 데비의 그런 모습을 보고 미소 지었다.

"데비야, 부왕님 눈에 띄려고 그러니?"

"아니요, 담마팔 사문님께 예의를 갖추려고요. 사문님께서 빠딸리뿌뜨라로 떠나시면 언제 다시 뵐지 모르니까요."

데바와 데비의 생각은 분명 달랐다. 데바는 데비가 환송연에서 아쇼까의 눈에 잘 띄기를 바랐고, 데비는 그동안 스승처럼 의지하고 믿었던 담마팔 사문에게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데바가 말했다.

"네 말대로 담마팔 사문이 다시는 산치 절에 오지 않을지도 모르겠구나."

"담마팔 사문께 배우려고 왔던 어린 사문들도 하나 둘 떠날 거예요."

"그렇다면 아반띠국 안에서 고승을 찾아봐야겠구나."

데바는 담마팔 같은 고승을 초빙해 자신이 조성한 산치동산 절을 계속 유지시키려고 생각했다. 절이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이다. 무역 때문에 멀리 떠나 있더라도 든든했다. 실제로 데바는 사문들의 기도 덕분에 무역을 잘 해왔다고 믿었다. 산치동산 절의 사문들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아침저녁으로 기도해 주었던 것이다.



석양이 지평선 너머로 지는 시각이 되자, 시원한 강바람이 불어왔다. 데바와 데비는 수레를 타고 저택을 나섰다. 궁궐 정문에는 벌써 수십 대의 수레가 도착해 있었다. 환송연에 참석할 여러 도시의 관리와 상인수장들이 타고 온 수레였다. 정문에서는 경비대장의 지시를 받은 경비군사들이 간단한 검문을 했다. 데바와 데비도 검문을 받고 통과했다.

궁중연회장 앞뜰에도 사람들이 북적거렸다. 정문을 통과한 관리와 상인들이었다. 호위군사들은 궁중연회장을 일정한 간격으로 빙 둘러서 경호 중이었다. 궁중연회장 문이 열리자 뜰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 입장했다. 데바와 데비도 연회장에 들어가 창문 옆자리를 잡았다. 창문의 비단 커튼이 강바람에 나풀거렸다. 시프라강 너머 들판은 어스름이 깔리어 어둑어둑했고, 검붉은 카펫 같은 노을은 여전히 서녘하늘에 걸려 있었다.

이윽고 특사 일행이 입장했다. 환송연에 참석한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다. 특사 일행이 앉을 자리는 연회장 맨 앞줄이었다. 특사단장 라다굽따와 담마팔 사문은 앞줄 중앙의 식탁 의자에 앉았다. 데바와 데비는 담마팔에게 다가가 합장했다. 데바가 말했다.

"사문이시여, 청안하소서."

"상인수장이시여, 어디를 가더라도 데바 가족을 위해 기도하겠소."

데비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문이시여, 빠딸리뿌뜨라로 가시더라도 저희 가족을 잊지 말아주세요."

"데비, 그동안 우리 사문들에게 올린 공양을 잊지 않겠소."

데비가 무릎을 꿇고 담마팔의 발에 입을 맞추었다. 사문에게 존경을 표하는 곡진한 동작이었다. 담마팔 사문은 무릎을 꿇은 그녀의 머리를 만지며 축원해 주었다.

"붉은 연꽃처럼 아름다운 데비를 나는 찬탄하노라!"

담마팔 사문이 축원하는 동안 데비는 머릿속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어둔 방에 햇살이 비추는 것 같았다. 옆에서 지켜보는 데바도 감격했는지 합장한 두 손을 이마까지 올렸다.

아쇼까가 입장한 것은 바로 그때였다. 환송연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 박수를 치며 하얀 예복을 입은 아쇼까를 맞이했다. 특사 일행은 아쇼까가 자리에 착석한 뒤까지 박수를 쳤다. 환송연을 열어준 것에 대한 감사의 박수였다. 아쇼까는 손을 들어 흔들면서 응했다. 데바와 데비도 박수를 쳤다.

궁중요리사들이 요리한 음식이 나온 뒤에는 빠딸리뿌뜨라까지 무사히 돌아가기를 빈다는 아쇼까의 짤막한 환송사와 그동안의 환대에 감사한다는 라다굽따의 답사가 이어졌다. 연회장은 작별의 아쉬움보다는 곧장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바뀌었다. 선봉대장의 건배사가 끝나자마자 술잔이 오갔다. 연단에 오른 무희들이 궁중악단의 연주에 맞추어 춤을 추자 분위기는 한껏 고조되었다. 선봉대장이 아쇼까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했다.

"부왕님, 지금 데바 상인수장을 접견실로 안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오."

선봉대장은 마치 작전을 하듯 아쇼까와 사전에 상의한 대로 민첩하게 움직였다. 데바와 데비가 앉은 자리로 가서 선봉대장이 말했다.

"데바 상인수장이시여, 부럽소."

"무엇이 부럽다는 것이오?"

"아쇼까 부왕님께서 데비와 함께 접견실로 오시라고 했소."

"데비까지 말이오?"

"놀라지 마시오. 부왕님께서 청혼하신다고 했소."

데바와 데비가 동시에 놀랐다. 그런데 놀람의 강도는 서로 달랐다. 데바는 뜻밖의 행운에 감격했고, 데비는 상상 밖의 일이었으므로 당황했다. 데바가 놀란 데비를 안심시켰다.

"데비야, 진정하거라."

"아버지, 어머니 간병은 누가 하나요?"

"그건 걱정하지 말거라. 너도 알다시피 이제는 산책도 하지 않니?"

"아버지 뜻을 따르겠지만 뭐가 뭔지 혼란스러워요."

데바가 데비의 두 손을 마주 잡았다.

"나를 믿거라. 너의 고귀한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이다."

데바와 데비는 선봉대장을 따라서 궁궐 접견실로 갔다. 데바는 접견실을 한 번 들른 적이 있었으므로 낯익었지만 데비는 높은 천정과 번쩍거리는 장식품들을 보고 어리둥절해 했다. 선봉대장은 접견실까지만 안내하고 환송연장으로 돌아갔다.

이윽고 아쇼까가 환송연 자리에서 바로 온 듯 예복차림으로 나타났다. 데바와 데비가 서 있자 자리에 앉으라고 말했다.

"내가 불렀소. 편하게 앉으시오."

"예, 부왕님."

"왜 불렀는지 선봉대장에게 들었지요?"

"예, 부왕님."

"나는 오늘밤 데비에게 청혼하려고 하오. 허락해 주시오."

아쇼까가 데비의 눈을 보며 말했다. 데비는 아쇼까를 바로 보지 못했다. 아쇼까의 강렬한 눈빛에 압도되어 고개를 숙였다. 혼인을 청하는 아쇼까의 눈빛은 이글이글 타고 있었다. 데바가 합장하며 말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좋소. 데비가 원한다면 시프라강 언덕의 별궁을 내주겠소."

데비가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거렸다.

"부왕님이시여, 머리가 어지러우니 밤공기를 쐬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오."

거침없는 성격답게 아쇼까의 말투는 시원시원했다. 데바는 데비의 손을 잡고 접견실을 나왔다. 데비는 후들후들 떨고 있었다. 구름 사이로 빠져나온 반달이 달빛을 뿌렸다. 데비의 얼굴은 곧 혼절할 듯 창백했다. 기어코 데비는 데바에게 안긴 채 쓰러져 버렸다.〈계속〉

전통예술 | 자체제작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법고
법당천도법고
태 징
목 어
경기도
경기도 하남시 산곡북로 49-50
031)793-3906
010-5264-3906
계좌번호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 www.yangjikukak.com

말기암 · 환자 · 암 · 소멸 · 임상실험 후원비 도움 주실 분
허리 · 무릎 · 목 · 엉치 · 다리
수술, 시술, 근육치료, 부항 등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아도
통증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면
1회 체험하러 오세요.
진짜 거짓말처럼 즉각 효과를 확인 해볼 수 있는 발명특허의
세상에 유일한 원리방식의 척추 골반 목뼈를 조정하는 의료기기입니다.
말기암 환자 분들은 반드시 체험하러 오세요.
암을 극복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암 소멸에 대한 임상실험 반드시 하겠습니다.
NAVER 척추근육강화기 검색
소자본지점 모집
예약 010-6575-7866